



비룡소 전래동화 27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김미혜 글 · 최정인 그림 | 양장 | 본문 36쪽 | 가격 12,000원 | 5세부터
ISBN 978-89-491-0139-2/ 978-89-491-0118-7(세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동시인 김미혜의 맛깔스러운 글과 최정인의 개성 있는 그림이 어우러진 옛이야기

개성 있는 그림과 재미난 글로 완성도 있는 그림책을 선보여 온 「비룡소 전래동화」 시리즈 스물일곱 번째 책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어린 오누이가 무시무시한 호랑이에 지혜와 용기로 맞서 위기를 모면하고, 하늘의 도움으로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권력자로 상징되는 ‘호랑이’와 힘없고 가난한 백성인 ‘오누이’의 기 싸움은 아슬아슬하고도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며, 오누이가 지혜와 용기로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통쾌하게 전해진다. 마침내 해와 달이 되는 오누이의 행복한 결말은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겨 온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구전되는 대표적인 옛이야기 중 하나인 이 이야기는, 동시인 김미혜가 다양한 각편을 수집해서 꼭 필요한 화소를 살리고, 긴박한 구성과 의성어, 의태어가 풍성한 리듬감 있는 언어를 더해 맛깔스러운 옛이야기로 새롭게 풀어냈다. 풍부한 표현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정인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으스스한 이야기를 한결 부드럽게 표현했다. 다양한 장면 구성은 이야기의 긴박한 전개와 조화를 이루며, 옛이야기의 맛과 멋을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 무시무시한 호랑이에 지혜와 용기로 맞선 오누이 이야기

옛날 옛날, 깊은 산골 오두막집에서 홀어머니가 어린 오누이를 키우고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건넌마을 잔칫집에 일을 다녀오는데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는 고개마다 나타나 떡을 다 빼앗고, 어머니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 치마를 차례차례 빼앗은 다음, 어머니마저 텃석 잡아먹었다. 그러고선 어머니 행세를 하고 오누이를 찾아갔다. 오누이는 어머니의 목소

리와 손이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종일 일하느라 목이 쉬고 손이 뒤틀다는 호랑이의 말에 별척 문을 열어 줬다. 그제야 오누이는 호랑이라는 걸 눈치채고 피를 내어 버드나무 위로 도망쳤다. 호랑이도 뒤늦게 오누이를 바짝 뒤쫓아 왔다.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되게 생긴 오누이는 두 손 모아 하늘에 빌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굵고 튼튼한 금빛 줄과 은빛 줄이 스으윽 내려왔다. 오누이는 두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오빠는 달이 되고 누이는 해가 되었다. 한편, 씨근덕거리다가 하늘에 거꾸로 빈 호랑이는 썩은 줄을 타고 올라가다 줄이 끊어져 떨어져 죽고 만다.

호랑이는 옛날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갖 것들을 다 빼앗았던 권력자들을 상징한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인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나약하게 당하지만은 않는다. 호랑이와 오누이의 기 싸움은 으스스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아슬아슬하고 박진감 넘치게 전개된다. 오누이는 침착하게 피를 내어 똥 마렵다고 둘러대고 버드나무 위로 도망치는가 하면,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냐는 호랑이의 물음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된다고 알려 준다.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에 맞선 오누이를 하늘도 도와 주지만 호랑이는 하늘도 별한다. 무시무시한 호랑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오누이를 따라 하다가 썩은 동아줄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은 통쾌하기까지 하다.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벗어날 수 있다는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위기 속에서도 용감하고 다정하게 누이를 챙기는 오빠와 너무 순진한 나머지 실수도 하지만 오빠를 믿고 따르는 누이, 무시무시한 듯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호랑이 캐릭터가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 리듬감 있는 언어를 통해 입체적으로 살아나 이야기에 맛깔스러움을 더해 준다.

● 옛이야기의 맛과 멋을 더하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

액자처럼 틀에 담아낸 그림은 무대의 극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해 준다. 풍부한 표현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정인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으스스한 이야기를 한결 부드럽게 표현했다. 어머니 앞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겁을 주고 어머니를 잡아먹는 장면은 구체적인 묘사를 생략하고, 원경 속에 아득한 풍경과 까마귀, 토끼 같은 동물들의 움직임을 담았다. 청색과 주황색의 차가운 대비는 분위기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호랑이와 오누이가 기 싸움을 하는 장면은 인물의 표정과 행동이 강조되어 긴장감을 돋운다. 깜깜한 밤 버드나무를 배경으로 호랑이와 오누이가 대치하는 장면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전해 준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보며 맛깔스러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옛이야기의 맛과 멋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김미혜 서울에서 태어나 양평에서 자라고 대학에서 국어교육학을 공부했다. 그동안 전통문화 유산 속에서 놀고 배우며 『알콩달콩 우리 명절』 시리즈, 동시집 『아기 까치의 우산』, 『아빠를 딱 하루만』, 『꽃마중』을 펴냈고, 그림책 『깜장 콩벌레』, 『아기 곰 미샤 마사』,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돌로 지은 절 석굴암』 등에 글을 썼다.

최정인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관화를 공부했다. 『바리공주』, 『견우 직녀』 등 풍부한 표현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린 책으로는 『마법의 빨간 립스틱』, 『그림 도둑 준모』, 『제닝스는 꼴찌가 아니야』, 『아빠 보내기』, 『넌 누구야』, 『우리들만의 규칙』, 『도둑님 발자국』 등이 있다.